

check ME up!

2026년 8월 3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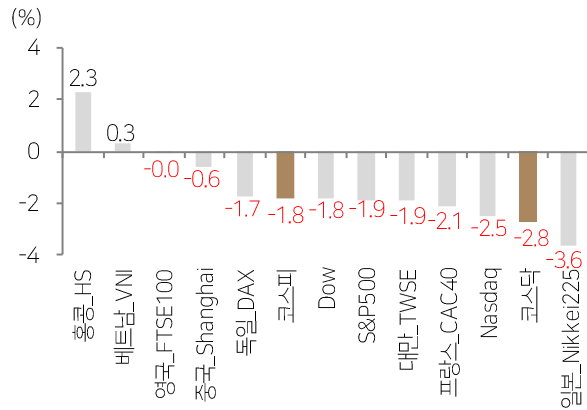
홍록은 투자전략 RA | hongre@daolfn.com



I . Weekly Review	2p
II . 경제지표 Preview	3p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IV.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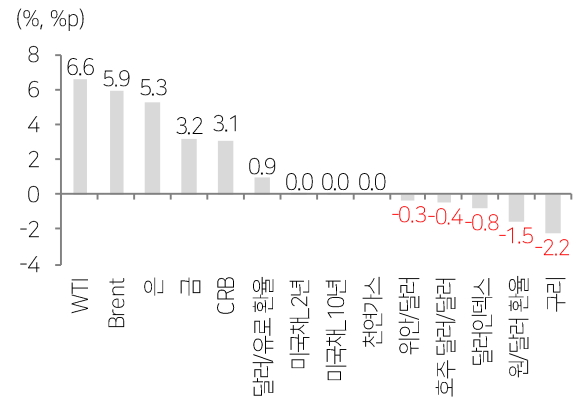
I.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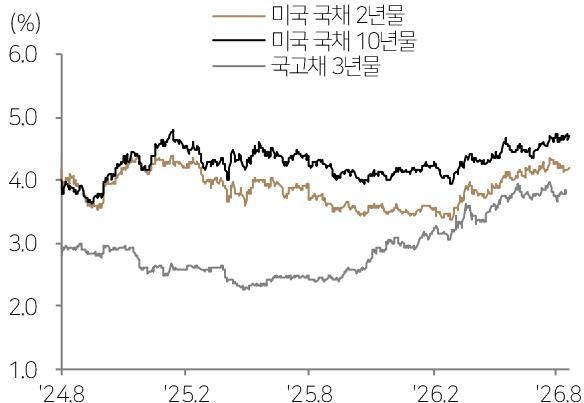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8/14일 대비 8/20일 증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Note: 수익률은 8/14일 대비 8/20일 증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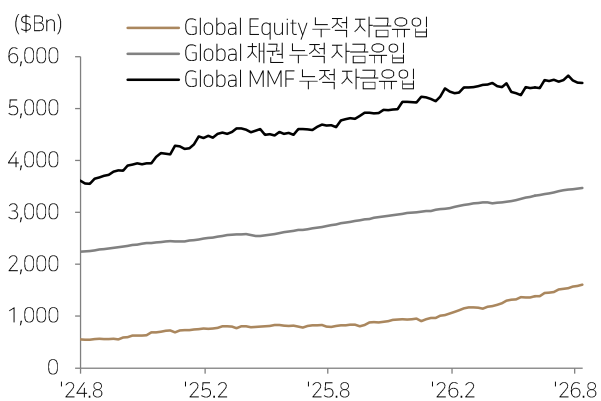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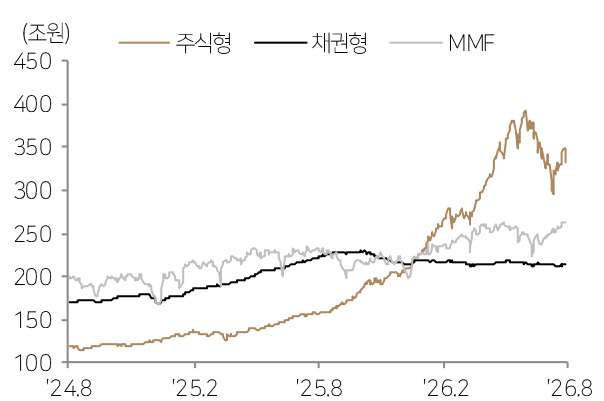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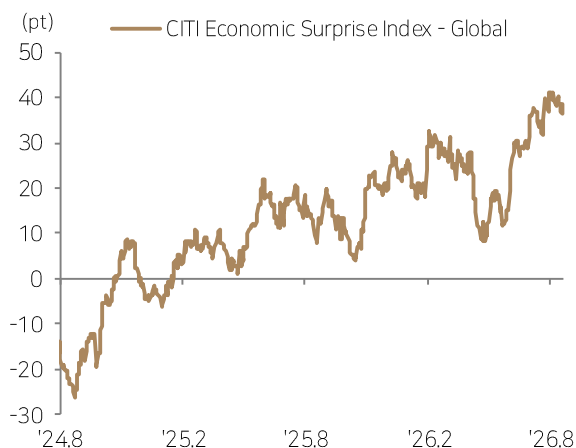
II. 경제지표 Preview

- 8월 확인된 미국의 실물지표들은 고용, 임금, 소비가 모두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현황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 이미 CPI는 확인했지만, 7월 PCE 지표를 통해 물가의 안정세가 재확인될 경우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소비심리지수들의 추가 악화 여부도 확인할 필요
- 금일 발표되는 일본 CPI와 함께, 다음주 도쿄지역의 소비자물가 지표도 확인해 둘 필요. 지난 주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는 아직 안정적이지만, 일본의 PPI나 수입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인플레이션 상승이 가속화되는 흐름이 확인될 경우, 일본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주의 필요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8-25	한국	8월 소비자심리지수	Index	-	106.8
2026-08-25	미국	7월 신규 주택 매매	천건	620	628
2026-08-25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Index	90.2	90.8
2026-08-26	미국	7월 개인소득	%mom	0.2	0.2
2026-08-26	미국	7월 개인소비지수	%mom	0.1	0.3
2026-08-26	미국	7월 PCE 물가지수	%yoy	3.6	3.7
2026-08-26	미국	7월(잠정) 내구재 수주	%mom	0.5	0.5
2026-08-26	미국	2분기(2차) GDP 연간화	%qoq	1.5	1.5
2026-08-28	미국	8월(최종)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Index	51.0	51.0
2026-08-28	미국	8월(최종)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	%	-	4.3
2026-08-28	미국	8월(최종) 미시간대 5~10년 기대인플레이션	%	-	3.3
2026-08-28	일본	8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	%yoy	1.9	2.0
2026-08-28	일본	8월 실업률	%	2.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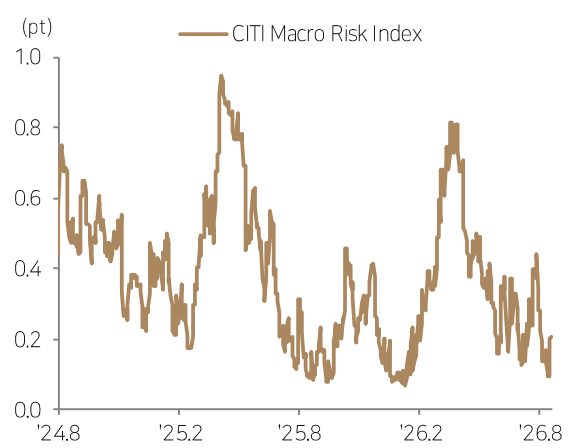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8/26	미국	상	엔비디아 실적 발표	■ 현지시간 8월 26일 발표 예정.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 920.2억달러, EPS 2.14달러로 형성. 직전 분기 실적은 매출 816.2억달러, EPS 1.87달러. 관심은 당장의 실적보다도 AI 투자 및 수요 전망이 될 것. 8월초까지 하리퍼스케일러들의 CapEx 전망 상향 기초가 확인된 만큼 데이터센터 매출이나 가이던스가 기대에 부응하며 관련주들의 회복기조를 이어갈지 여부에 주목
8/27	한국	상	금융통화위원회	■ 한국은행은 7월 금통위에서 23년 1월 이후 첫 인상을 단행. 회의 당시 총재는 GDI-GDP 갭과 7월 물가지표에 주목할 것임을 시사. 이를 기준으로 하면 GDI-GDP갭과 근원물가의 상승이 확인된 만큼 연속인상 가능성 배제 어려움 ■ 반면 헤드라인 및 생활물가는 전월 대비 둔화, 무엇보다 환율의 급한 하락이 발생해 점진적 인상을 택할 가능성도 높음. 당사는 8월 동결 가능성을 우위에 두고, 10월 전후 금리 변곡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 유지. 예상과 다른 연속 인상 시 이에 대한 프라이싱 미진했다는 점에서 전고점 테스트 발생 가능
8/27~29	미국	상	연준 잭슨홀 미팅	■ 2026년 주제는 “금융 혁신: 결제와 정책에 대한 합의”. 케빈 워시는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대차대조표 등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 5개 분야에 대해 TF를 구성하고 인선을 발표한 상황. 해당 TF들의 보고 시한은 연말로 예정되어 있어 이번 잭슨홀은 블랙박스 상태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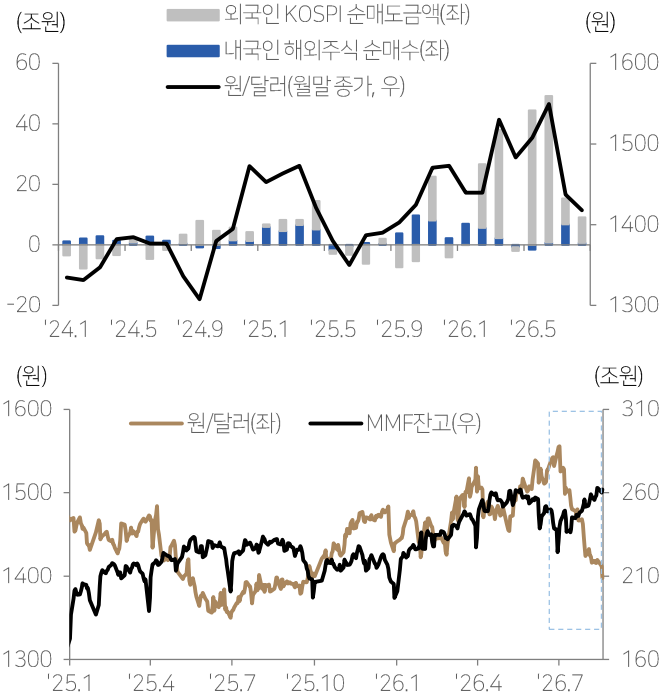
일자	내용
금주 (08/14~08/20) 증시 동향	■ KOSPI(-1.8%), KOSDAQ(-2.8%) 하락. KOSPI는 비철소재등(+2.0%), 반도체(+0.3%), 보험(+0.1%)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IT하드웨어(-9.7%), 자동차(-7.6%), 조선(-6.3%) 업종 하락. 휴장 중 전해진 메모리 업종 호재에 코스피 강세 출발. 다만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유가·금리 부담으로 하락 전환, 차익 실현·AI 우려가 겹치며 급락. 이후 SK하이닉스 대규모 주주환원 발표와 미 국채금리 안정을 재료로 저가매수가 유입, 급반등하며 낙폭 만회. 금주 매도/매수 사이드카 교차하며 변동성 장세 지속 ■ DOW(-1.8%), S&P500(-1.9%), NASDAQ(-2.5%) 하락. 미·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유가·금리가 상승하며 약세 출발. 고금리 부담이 AI·반도체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로 이어지며 기술주 낙폭 확대. 주중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 발표로 중장기 금리가 급락하며 반등 흐름 보였으나,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및 소비 둔화 우려 등으로 반등 제한
차주 (08/24~08/28) 증시 전망	■ 8월 들어 확인된 미국의 실물지표 둔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그리고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 등은 일단 금리 측면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소재. 물론 극적인 금리 하락 기대가 아닌, 당분간 상단을 제한해 줄 수 있다는 정도의 기대가 합리적인 것. 현재의 금리 수준에서 추정하더라도 현 KOSPI의 수준은 언더밸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 2분기 실적시즌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당분간 실적 전망의 적극적인 상향조정이 없다 하더라도 멀티플 회복에 따른 추가 상승 가능성은 타진해 볼 수 있다고 판단 ■ 조치 등을 통해 금리 등락 중심점이 4.65%수준에만 안착하더라도 7,200선, 4.6%대로 수렴할 경우 7,700pt대의 반등 여력을 타진해 볼 수 있다는 판단. 상승 국면 진행 시 중심은 반도체와 주주환원 기류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주들에 있을 것으로 기대. 금과 구리 가격 등의 상승 움직임을 감안 시 비철금속, 7,000pt 이상 영역 진입 시 경우 방어+금리+원화 가치 회복 관점에서 금융섹터도 관심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IV. Key Chart & 핵심지표

원/달러 환율의 급락 원인. (1)포트폴리오 투자 순유출 규모 감소, (2)기업들의 환전수요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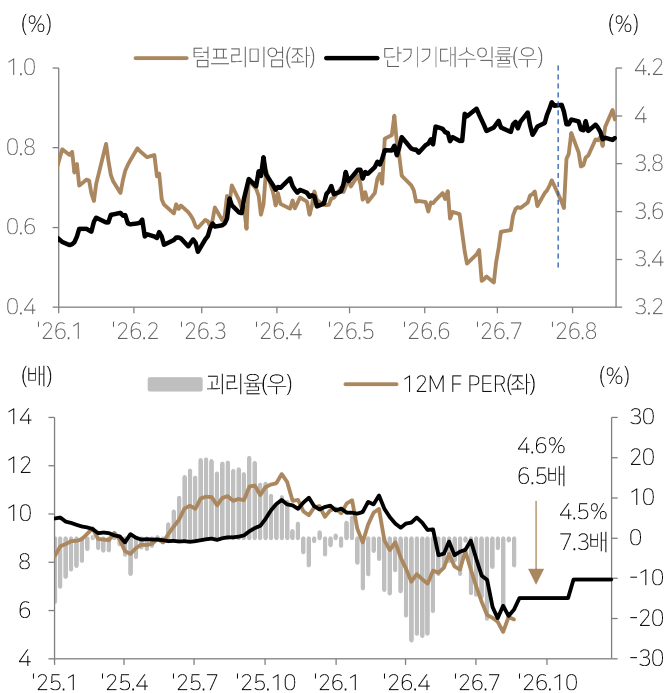


Source: Quantiwise, 다올투자증권

■ 7월 초 1,550원 대에서 형성되던 원/달러 환율이 7월부터 급락하며 주 중 1,380원대까지 경험. 급격한 방향 전환 자체가 당혹감을 주고 있음. 성장 측면에서 원화 펀더멘털이 강했던 것은 새로운 소재가 아니고, 결국 수급에서 답을 찾아야 할 듯. 포트폴리오 투자에서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외국인 매도 우위 기조가 8월에도 이어짐. 1,500원대 중반이 원화의 극단적 저평가였다고 보면, 일정 부분 되돌림을 뒷받침할만한 소재이긴 함

■ MMF 잔고를 환율과 연결해 볼 수 있음. 지난 6월 말 224.3조원으로 단기 바닥을 형성한 MMF잔고는 7~8월 증 급증세를 보이며, 262.9조원까지 증가. 7월 시장 변동성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환율 급락과 함께 진행됐다는 것은 하이닉스를 비롯한 수출 기업들의 환전수요(달러 매도 후 원화 보관)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 기업들의 환전 수요가 단기에 집중됐고, 큰 축을 담당하고 있던 하이닉스 발 환전 수요가 감소한다면 추가 하락보다 1,400원대 중반으로의 되돌림 가능성이 높아 보임

달라진 금리 부담의 성격과 멀티플 측면의 상승 여력 타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금리에 대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부담의 성격이 다소 달라짐. 7월의 금리 상승은 연준의 매파적 정책에 대한 부담이었다면, 8월에 느껴지는 부담은 장기금리 통제 능력, 정책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발표는 일단 금리 상단을 제약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바이백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의미는 아님. 해당 정책은 한시성이 있고, 반복될 경우 오히려 텀프리미엄을 자극하는 소재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 금리 통제 능력에 대한 우려가 텀프리미엄을 상승시키는 소재였다면, 재무부 측에서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부담을 단기적으로나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소재라고 판단

■ 10년물 기준으로 한때 4.8%를 위협하던 금리 레벨의 등락 기준이 소폭이나마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경우, 당분간 이익 전망이 정체된다 하더라도 멀티플 측면에서의 확장 여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